

LG그룹, 화학 주축 매출 80조원 달성

창립 60년에 매출액 26만배 성장 ... 화학·전자산업 개척 선도역할

화장품 제조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LG그룹이 전자, 화학, 통신·서비스 등으로 사업영역을 대폭 확장한 가운데 2007년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LG는 1947년 화장품 크림 출시로 첫 사업을 시작한 이래 그룹 매출 80조원대, 자본금 7조5000억원, 국내외 종업원 14만명의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다.

LG는 1월2일 여의도 트윈타워 대강당에서 구본무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사장단 등 경영진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새해 인사모임을 겸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LG는 첫 사업을 시작한 1947년에 3억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한 뒤 20년 뒤 화학사업에 이어 전자사업이 본격 성장하기 시작한 1967년에는 6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또 국제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1970년에는 520억원을, 무역·금융·서비스 등으로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한 1980년에는 2조7000억원을, 경영혁신을 본격화한 1990년에는 16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구본무 회장이 취임한 첫 해인 1995년에는 50조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매출규모 각각 30조원과 12조원인 GS, LS그룹의 계열분리 후에도 전자, 화학,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2006년에 창립 첫째 대비 26만배 이상 성장한 80조원대의 매출을 기록해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LG는 1962년 라디오 62대를 미국에 첫 수출해 4000달러의 실적을 기록한 이후 44년이 지난 2006년에는 1000만배 가량 성장한 400억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LG는 창업 첫째인 1947년 약 300만원의 자금을 마련해 화장품 제조업을 시작했고 현재는 250만배 이상 증가한 7조5650억원의 자본금으로 전자, 화학, 통신·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LG의 종업원 수는 창립 당시 럭키크림을 생산하기 위해 90평 공장에서 남녀 반반으로 20명 정도가 일하기 시작했으나 현재는 7000배 증가한 14만명으로 국내 8만명과 해외 6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LG는 생산제품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경영 역사에서도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LG화학은 1957년 국내기업 최초로 대졸사원 공채를 실시했다.

혈연과 지연 등 연고 중심의 비공식 특채관례를 깨고 공식적으로 대학에 추천을 의뢰해 채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LG화학은 1969년 민간기업으로서는 최초로 기업공개를 단행함으로써 1970년 2월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했다.

당시 주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공개함으로써 주식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국민기업으로 거듭 태어났다.

LG전자는 1976년 기술경쟁시대에 대비하여 종래 공장별, 제품별로 분산돼 있던 연구소를 통합해 국내 민간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중앙연구소를 설립해 R&D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술연구 단계로 이끄는 시발점이 됐다.

LG는 2003년 대기업그룹 최초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해 계열사간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고 차별화된 선진형 기업지배구조 구축을 완료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03>